

2003년 경제전망

산업동향분석실

〈요 약〉

2002년 한국경제는 상반기 중 소비, 건설 등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하반기 들어서 다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호조로 연간 6.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3년에는 민간소비지출의 둔화와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성장률이 5.6%를 기록하여 2002년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가계부담 부채의 증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로 2002년 하반기 이후의 둔화세가 2003년에도 이어질 것이나, 실물경기의 기초여건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것으로 보여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2003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수출 증가 및 내수 증가 유지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연간 7.5%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2002년 ICT 제품의 수출 호조와 대중국 수출의 급증으로 흑자 규모가 2001년보다 확대되었지만, 2003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원화 절상 기조 지속으로 수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흑자 규모는 70억 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단기적인 상승 요인이 있으나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상승 압력의 약화로 2003년에는 3.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전망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2002년 세계경제는 2001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국제 금융시장 불안,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의 위험 요인들이 대두되며 회복 속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이 같은 위험 요인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의 회복세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고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금리는 2003년에도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며, 최근 석유수급 불안, 대이라크 공격 임박설 등으로 인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지출의 둔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에 의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설비투자와 수출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재조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등 대내외 충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대외 경제여건 변화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 불확실성 속에
완만한 회복

2002년 세계경제는 2001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완전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지만 하반기에 들어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과 같은 위험(risk) 요인들이 대두되면서 회복 속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다수 전망기관들은 2002년 상반기 중에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미국 기업들의 회계 부정 여파에 따른 美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기간 이어진 데다,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테러 재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세계경제의 향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의 회복세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고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OECD, EIU, DRI-WEFA 등 주요 기관들이 같은 위험 요인들이 대두된 점을

감안하여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OECD 국가들의 경기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OECD 경기선행지수도 2002년 4월을 기점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2003년 중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경제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의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2002년 상반기에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기업들의 부실 회계 파문에 따른 주식시장의 약세 지속과 대외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며 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0월 중 9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ISM(공급구매자관리협회) 제조업 지수는 9~11월 중 3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는 부진을 나타내며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경제 주체들의 신뢰도 약화는 궁극적으로 실물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2001년 경기 침체하에서도 완전하게 시정되지 않은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증시 버블, 달러 고평가, 경상수지 적자, 과도한 개인부채 등)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켰다.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 구조적인

불균형 시정 여부 등과 같은 위험 요인들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이거나 회복 속도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잠재성장률(2.5~3.5%)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모습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경제가 구조적인 불균형의 문제점들을 적지 않게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데는 미국경제의 기초체질(fundamentals)이 일시에 붕괴될 만큼 취약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라크와의 전쟁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 주체들의 신뢰도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라 회복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2년 일본경제는 대외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 부문에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디플레 압력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구조 개혁과 경기 부양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강력한 구조 개혁을 표방해 온 일본 정부가 경기 침체에 직면하여 선심성 차원에서 경기 부양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행도 사상 초유의 금융완화 정책을 단행한 영향이 일시적이거나 경기 회복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안정 성장 국면에 진입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들(디플레 악순환 탈피, 은행 부실채권 처리, 기업 구조조정 등)의 해결이 미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 회복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일본경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외부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현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침체의 골이 깊지 않았던 유로경제는 2002년 들어서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빠르지 않다는 점과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측면에서 회복 속도의 둔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경기 회복세가 미진한 가운데서 정책당국은 경기 부양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했지만, ECB(유럽중앙은행)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았고,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각국 정부는 재정 건전화 협약 때문에 경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유로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급락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당초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회복세는 완만하

게 이루어질 것이며 성장률은 2년 연속 추세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교역 신장률은 2002년 2%대로서 2001년의 침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세계 교역 신장률이 정상 수준인 7%대를 회복하는 것은 200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대이라크전 예상으로 불확실성 증대

2002년 들어 국제 유가는 그 동안의 안정된 저유가 기조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8~9월부터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따른 수급 불안, 대이라크 공격 임박설 등의 영향으로 20달러대 후반에서 심

〈표 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2001	2002				2003			
		IMF	OECD	WEFA	EIU	IMF	OECD	WEFA	EIU
전세계 ¹⁾	2.2 (1.1)	2.8 (1.7)	-	(1.7)	2.7 (1.7)	3.7 (2.8)	-	(3.0)	3.6 (2.7)
선진국 ²⁾	0.8 (1.0)	1.7	1.5	-	(1.6)	2.5	2.2	-	(2.2)
미 국	0.3	2.2	2.3	2.3	2.5	2.6	2.6	3.2	2.6
일 본	-0.3	-0.5	-0.7	-0.6	-1.0	1.1	0.8	1.4	1.0
유 로	1.5	0.9	0.8	0.9	0.7	2.3	1.8	2.3	1.6
아시아 ³⁾	5.6 (4.0)	6.1	-	(5.5)	(5.4)	6.3	-	(6.1)	(5.9)
중 국	7.3	7.5	-	7.6	7.8	7.2	-	7.5	8.1
체제전환국 ⁴⁾	5.0 (4.4)	3.9	-	(3.7)	-	4.5	-	(4.4)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2. 9.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2. 11.
 DRI-WEFA, *World Overview*, 2002. 9.
 EIU, *Viewswire*, 2002. 10.

- 주 : 1) PPP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성장률 기준, () 안은 시장환율 기준 성장률.
 2) IMF 전망치는 NIEs(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5개국 포함. () 안은 OECD 회원국들의 전체 성장률 기준.
 3) IMF 전망치는 아시아 개도국. () 안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 기준 (호주 포함).
 4) IMF 전망치는 구소련·중동구 국가들을 포함. () 안은 구소련·동구 국가들의 성장률 기준.

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온 주 요인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시점이 임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라크가 UN의 자국내 사찰 활동을 허가함에 따라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이 어떤 형태로든 결행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2의 걸프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 예상을 중심으로 한 국제 유가의 향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1991년 걸프전이나 대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이 전쟁이 단기에 종식될 경우 단기적으로 평균 유가는 수급 차질로 인해 큰 폭으로 치솟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원유의 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원유 가격

은 정상 수준보다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주변 아랍국들의 직·간접적인 참전이 불가피할 것이며, 친미-반미 아랍국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세계 원유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변 산유국들의 장기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전쟁 기간에 주요 원전들이 공격을 받으면 그 여파는 상당히 크고 지속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실현될 경우 향후 1~2년간 심리적 저지선인 배럴당 40달러 전후의 고유가 시대가 직면할 것이다.

반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 계획이 유보 내지 철회되고 대규모 원유의 증산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세계경제의 선순환 전망과 맞물려 유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유가 시대가 도래

〈표 2〉 평균 국제유가 전망

시나리오	2003. 1/4분기	2003. 2/4분기	2003. 3/4분기	2003. 4/4분기
공격유보, 증산, 완만한 재고 조정 등	25달러	26달러	24달러	23달러
전쟁 단기화(가능성 높음), 중동지역 불확실성 제거 등	30달러 이상	27달러	25달러	24달러
전쟁 장기화	40달러 전후의 고유가 경험 예상			

한다면 세계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원유를 전량 수입(전체 수입의 약 15%)해 오는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이렇듯 경제 전반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예기치 못한 유가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원유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 유전 개발사업 활성화, 고부가가치·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전략적 원유비축물량의 대폭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년 하반기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제 원자재가격은 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 세계경제의 회복세 전망 등으로 석유제품 원료, 비철금속 등 기초 원자재를 중심으로 2003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 저금리 지속과 달러 약세 전망

2002년 국제금리는 미국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세계 각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2003년에도 불투명한 세계 경기를 반영하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달러 환율은 2002년 상반기 중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7월 이후부터 달

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시 증가하여 잠시 강세를 보였으나, 2002년 말과 2003년 미국경제의 회복 조짐이 명확치 않은 이상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낮은 금리로 인한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과 2001년 GDP 대비 3.9%(2000년 4.2%)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2002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미 정부도 달러화를 더 이상 강제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1년 말 달러당 130엔을 넘어섰던 일본 엔화는 2002년에는 115~130엔 범위에서 완만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엔/달러 환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02년 중 엔화는 달러당 평균 125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에는 상반기 약세를, 하반기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평균 120엔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내 경제여건 변화

건조한 성장세 유지와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

2002년 국내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저조한 성장세와 국내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건조한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 그 동안 소비 및 건설투자 주도의 성장에서 수출 주도의 성장으로 이전되는 국면에 있다. 반면, 설비투자는 일정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다.

소비지출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가계대출의 증가와 주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 자산가격 하락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자체 움직임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가격 오름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급속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 발표 이후 정체를 또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여기에 그 동안 저금리 기조하에서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 영향으로 인해 저축률의 저하 및 가계대출 연체율의 확대 등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어 향후 소비지출 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실업률은 지난 5월 이후 2%대의 낮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창고·금융업을 비롯한 제조업·건설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금리, 안정적인 변동 가운데 소폭 상승 전망

국내금리는 2002년 11월 말 현재 콜금리 4.27%, 3개월 만기 CD 수익률 4.04%,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5.96%,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5.35%로서 전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 금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에 따라 예금은행의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에는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금 수요 감소와 그 동안의 유동성 확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하여 금리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3년 회사채 수익률은 연평균 7% 내외, 국고채 수익률은 6.5% 내외에서 각각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가치, 완만한 절상 추이 지속 예상

2002년 4월부터 원화 가치의 절상 추이가 계속되면서 2002년 11월 말 현재 1,208.0원을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2002년 연간 평균으로 1,25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에는 상반기 1,210원, 하반기 1,190원으로서 연간 평균 1,20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이후에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안전 통화로서의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일시 증가한 영향을 반영하기도 했으나, 2002년과 2003년 중 미국경제의 부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의 약세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견실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2년 11월 말 현재 986.3원을 기록하고 있는 원/100엔 환율은 2002년 중에 970~1,030원의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원/달러 환율과 동조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100엔 환율은 2002년 연간 평균으로 1,00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평균 환율도 1,000원 내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02년부터 계속되어 온 원화와 엔화 가치의 동조화는 이어질 전망이다.

2. 부문별 국내경제 전망

(1) 성장

2002년 6.0%, 2003년 5.6%로 소폭 둔화 전망

2002년 실질 GDP는 상반기에

6.1%의 성장률을 보인데 이어 하반기에 6.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소비지출과 건설투자의 역할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지만,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들어서 소비지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부동산 시장 과열 해소책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출은 하반기에 들어와 그 증가세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2002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4분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실질GDP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전반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상반기 5.5%, 하반기 5.7%의 성장률로서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은 무엇보다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등

의 주요 선진국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수출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중국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최근 들어 투자 심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3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 동안 투자를 지연시켜 왔던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모색 등에 따라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평균 6%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성장기여 구조는 2002

년 하반기부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반면, 수출과 설비투자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수출과 투자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의 패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확실성에 따른 신규사업 진출 및 설비투자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세계경제 회복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수출과 투자의 성장 견인 역할도 2002년보다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높은 수출 증가와 함께 급속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통 주력산업의 성장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다소 둔화되고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보다 큰 폭

〈표 3〉 2003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1	2002			2003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성장률	3.0	6.1	6.0	6.0	5.5	5.7	5.6
민간소비	4.2	8.0	5.9	6.9	5.0	5.3	5.2
총고정자본형성	-1.7	6.0	2.9	4.4	4.5	6.7	5.6
(설비투자)	-9.8	5.2	8.4	6.7	5.5	9.7	7.5
(건설투자)	5.8	6.7	-0.7	2.5	3.5	4.5	4.1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1.0	6.8	18.0	12.4	7.0	6.8	6.9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2.8	12.5	19.6	16.1	11.5	11.7	11.6
통관기준 수출입							
수 출(억 달러)	1,504	759	866	1,626	840	903	1,743
(증가율)	(-12.7)	(-3.2)	(20.4)	(8.1)	(10.6)	(4.2)	(7.2)
수 입(억 달러)	1,411	709	813	1,522	801	872	1,673
(증가율)	(-12.1)	(-2.3)	(18.7)	(7.9)	(13.0)	(7.2)	(9.9)
수출입차(억 달러)	93	50	53	103	39	31	70

의 둔화를 보일 전망이다.

(2) 소비

민간소비지출, 2003년 5.2%로 증가세 둔화 전망

2002년 민간소비지출은 연간 6.9%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잠재성장률과 2001년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하반기의 증가율이 5.9%로 상반기(8.0%)보다 낮은 수준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지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지표들도 2002년 3/4분기를 기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재 내수출하의 경우 3/4분기 중 전년 동기비 증가율(5.4%)이 2/4분기(4.3%)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9월 지수가 전년 동기비 0.3% 증가에 그치면서 7월(7.7%), 8월(8.9%)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판매 총지수도 2002년 1/4분기(전년 동기비 8.0%)까지 증가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졌지만, 2/4분기부터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도 3/4분기 들어서 하락세를 나타내며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 증가세가 하반기부터 둔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은 상반기까지 소비 증가에 기여한 부문들이 하반기 들어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비경제적인 요인, 특히 소비자들의 우려섞인 합리적 기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 회복에 따른 실질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세계경제의 지지부진한 회복세와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소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주가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증가 추세가 둔화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저금리 이후 가계대출 및 신용소비의 증가추세가 임계치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산 가치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에도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상반기(5%)까지 둔화 국면이 이어지고 하반기(5.3%)에는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간 5.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각에서 과소비라고 우려하고 있는 소비 증가는 2001년 4/4분기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것으로, 과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질소

득 증가율에 비해서 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은 수준에 있지만, 실질소득 증가에 대비한 소비지출의 탄력성은 약간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처분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 소비성향은 2002년 1/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2/4분기에는 오히려 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2년 하반기와 2003년에 가계 자산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1990년대 초 일본의 자산 및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가계파산과 같은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신용과 부동산시장의 버블은 서서히 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가계자산 및 신용의 위험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그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버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취하고 있는 중장기적 정책이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계에서 1997년 말 이후 자산가치의 하락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도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금리변동 조치를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신호(signal)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금리인상 시점을 적절히 선택해 추가적인 자산 버블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일본 상황과는 달리 한국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으로 은행권의 부실이 사상 최저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금리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저금리 가계대출에 대한 회수 압력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1/4분기 이후 상장사 기업들의 순이익은 사상 최고에 달해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4〉 실질소득, 소비지출, 평균 소비성향 현황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

	2001					200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실질소득	0.5	1.3	-0.1	3.4	1.3	7.7	6.2
소비지출	6.4	9.0	8.5	9.7	8.4	10.0	10.9
평균 소비성향	76.1	75.2	72.5	74.2	74.5	75.7	72.2

주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가처분소득) × 100.

이로써 향후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3) 투자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완만한 증가세 전망

지난해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 영향으로 1.7% 감소했던 고정자본형성은 2002년에 4.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에는 상반기 4.5%와 하반기 6.7%의 증가율로서 연평균 5.6%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저금리 기조의 지속, 수출 증가세, 내수의 견조한 증가세 유지 및 대내외 불확실성의 점진적인 완화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세계경기 회복세의 지연 가능성, 불충분한 수출 증가세 및 부동산 경기의 정체, 소비 지출 증가세의 둔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2002년 설비투자는 2001년의 대폭적인 감소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효과와 기업들의 최저한의 투자 유지 노력으로 인해 연평균 6.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외적인 투자 마인드 회복의 지연으로 본격적인 회복세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에도 설비투자

는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것이지만,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 및 내수 증가 유지에 필요한 투자 수요로 인해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연평균 7.5%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2002년 건설투자는 1/4분기에 10.1%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4분기에 4.1%로 떨어졌으며 하반기에도 저조한 증가율이 이어지면서 연평균 2.5%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1년 5.8%의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버블을 우려한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3년에도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2002년보다는 높은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출입

무역수지 흑자, 2003년 70억 달러로 축소 전망

2002년 무역수지(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수출이 전년 대비 8.1% 증가하고, 수입이 7.9% 증가함으로써 흑자 규모가 2001년보다 10억 달러 늘어난 10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2001년 하반기 이후의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1/4분기 중에 전년

동기 대비 11.1%나 감소하는 부진세를 면치 못했으나, 2/4분기에 5.0%의 회복세로 돌아선 후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3/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5%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1년 하반기에 20% 가까이 감소한 데 따른 수치상의 반등 요인 외에도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 제품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대중국 수출이 크게 호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은 2001년 중 각각 -45.2%, -23.5%라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DDR 중심으로의 D램 주력제품 구성 변화와 대중국 수요 증가에 힘입어 1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도 중국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코드분할다중접속)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와 유럽 등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 범유럽 디지털 셀룰러 통일 규격) 시장에의 진입 성공, 주종 수출품목의 고가화 등으로 휴대폰 수출이 40% 내외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 양대 시장에서의 수출 실적은 부진한 반면 중국과 아세안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중국 수출은 20%를 넘는 대폭적인 증가율을 기록(11월 현재까지 전년 동기비 26%)하면서 2002년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

고 있는데, 이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 급증에 따른 우리나라 중간재(전자부품, 철강, 석유화학, 직물류) 수출의 호조와 중국의 고속 성장에 따른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은 2002년 1/4분기 중 전년 동기비 -11.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세를 면치 못했으나 2분기에 7.8%로 회복된 후 3분기에는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재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과 석유제품 수출 부진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로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고, 자본재도 설비투자의 미약한 회복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재의 경우 곡류·쇠고기 등 농림수산물과 의류 등 섬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있고, 가계대출 확대 및 소득불균형 심화 등의 영향으로 캠코더, 자동차, 위스키 등을 비롯한 고가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연말까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수입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재보다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원화 절상 기조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영향으로 수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도 국내 성장 둔화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는 힘들겠지만,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02년보다 줄어든 7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2003년 상반기 840억 달러(전년 동기비 10.6% 증가), 하반기 903억 달러(4.2% 증가)로 연간으로는 1,743억 달러(2002년 대비 7.2%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수출 향방은 무엇보다도 미국-이라크 전쟁의 발발 여부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의 국제적인 과잉투자 완화 여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등 ICT 관련 제품들의 수출 증가세가 200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선진국의 본격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증가율이 2002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섬유 등 전통산업의 수출 여건은 2002년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수입은 상반기 801억 달러(13.0% 증가), 하반기 872억 달러(7.2% 증가)로 연간으로 9.9% 증가한 1,6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는,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로 소비재 수입은 그 동안의 높은 증가세가 꺾일 것이나, 자본재 수입은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수입은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과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심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표 5〉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1~10월
중화학제품	139,262 (25.2)	121,569 (-12.8)	132,470 (5.0)
반 도 체	26,015 (38.0)	14,259 (-45.2)	13,565 (10.4)
산업용전자	24,152 (41.8)	22,794 (-5.8)	22,770 (24.1)
자 동 차	13,217 (18.3)	13,319 (0.8)	11,703 (6.4)
철 강 제 품	7,629 (10.4)	6,928 (-11.9)	5,784 (-1.3)
석 유 화 학	9,407 (34.1)	8,394 (-13.2)	7,590 (6.2)
일 반 기 계	7,155 (30.4)	8,325 (-0.8)	7,517 (8.0)
가정용전자	7,535 (18.5)	9,693 (-4.4)	9,034 (10.1)
선 박	8,229 (9.9)	9,909 (17.7)	8,247 (-1.6)
경공업제품	28,170 (8.0)	24,761 (-11.8)	20,488 (-2.3)
직 물	9,968 (9.4)	8,843 (-13.8)	7,256 (-3.2)
섬 유 제 품	6,043 (3.7)	5,187 (-14.2)	4,068 (-7.7)
플 라 스 틱	2,724 (13.2)	2,001 (-5.6)	1,846 (10.1)

(5) 물가

소비자물가, 2002~2003년 3% 내외 상승률 전망

200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현재까지 전년 동기비 2.6%를 기록하고 있고 4/4분기에도 별다른 상승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여 2002년 연평균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집세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상승률이 9월의 2.9%에서 10월 중 3.0%로 다소 높아졌으나 3.0% 내외에서 안정적인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3년에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상승 압력의 부재로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3.0% 내외가 될 것이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3.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유동성 과잉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요금이나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기 둔화, 민간 소비심리 및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은 물가 상승 압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의 현 수준 유지 내지 하향 추세와 이라크 문제의 해소 가능성으로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서 원화 표시 수입 물가는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 하락 등

으로 인한 일부 제조업품의 가격 하락과 전자상거래나 대규모 할인매장 확산 등의 유통산업 발전으로 인한 물류유통비용의 개선은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의 힘이 하락 요인의 힘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 물가상승률은 2002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인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경제정책 방향

우리 경제는 2002년 6.0%, 2003년 5.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잠재성장률(5%대 전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추세적으로는 잠재성장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2002년 경제성장은 하반기에 들어와 소비, 건설투자 등 상반기 성장 요인들이 둔화되는 반면, 수출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경제성장도 민간소비지출의 증가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둔화되는 반면, 수출과 설비투자의 견실한 증가세에 의해 촉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안정적 성장 기조를 나타내는바, 이러한 성장 촉진 요인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비투자와 수출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정책의 재조정과 경제, 특히 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경쟁력 강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 정책 가운데서는 한국식 재벌의 경영상 특징 중 아직 문제가 많은 기업지배구조와 비관련 다각화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함양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대내외 요인들, 즉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회복세와 환율 불안, 대이라크 전쟁 가능성에 따른 수출 및 유가에 대한 충격, 국내 자산가치의 하락 등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정책(forward looking policy)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국 경제 회복세의 불확실성에 따라 원화 환율이 일시적으로 10% 절상될 경우 수출은 1.5% 감소하고 우리 GDP성장률은 0.3% 정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대이라크 전쟁 발발로 유가가 일시적으로 10% 상승하는 경우 우리

GDP성장률은 0.1% 정도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자산가치의 하락 가능성은 현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의 부채 규모, 부동산 가치, 주식가치 등과 소득창출 규모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시의적절한 금리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 및 투자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별 통상마찰에 대비하여 국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제적인 차원에서 통상마찰을 방지하는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거시 정책과, 산업발전 비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미시 산업정책 등을 적절하게 연계시켜 국가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부정적 심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 기대를 유발하지 않도록 경제 실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책 대응, 국가적 홍보시스템이 모색되어야 한다. 